

# 광주 공유촉진사업 본격화...“물품서 재능까지”

### 공유단체·기업 3곳 지정...사업비 지원단체 9개 선정 주민밀착형 사업·교육·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등 제공

광주시는 23일 지역의 유희공간과 물품, 각종 재능 등의 지원을 공유해 사회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공유경제와 시민들의 자발적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유촉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접수한 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기업 3곳을 지정했고, 지원단체 9개 사업을 선정했다.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빛나는 발산 협동조합 ▲수페그린 협동조합 ▲(사)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등이다. 또 ▲수페그린 협동조합 ▲쓰담쓰담 예술나눔 ▲세대소통놀이문화교육공동체 통 ▲첨단1동주민자치회 ▲화정3동주민자치회 ▲지원1동마을사랑채운영협의회 ▲학동주민자치회 ▲공하나협동조합 ▲산수1동 새마을부녀회 등에 대해선 총사업비

6500만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공유단체·기업은 공유를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단체로, 광주시 지정 공유단체·기업으로 인증돼 3년간 공유광주 로고 사용권, 광주시 공유관련 행사 우선 참여권, 각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공유 활성화 관련 자유제안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물품, 공간, 재능 공유 등 교육공동체 통 ▲첨단1동주민자치회 ▲청소년 대상 공유교육과 캠페인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해당된다.

시는 지역 공유단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유단체·기업을 공식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50개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하고 사업비 5억8500만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2021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결과 우수단체(광하나협동조합, 동구행복나눔봉사단)에 대해서는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남구 진월동 광주공유센터를 2016년부터 운영중이며 물품과 재능공유 등 다양한 공유 관련 사업과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

### 광주·전남 세 자릿수 확진 111일 만...신규 변이 촉각 광주 342·전남 409명

광주·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1일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입국 심사와 요양병원 면회 등 대인 방역도 완화됐지만,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으로 하계 휴가·방학철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42명, 전남 409명 등 모두 751명을 기록했다. 일상 접촉과 고위험 시설(병원·교육기관)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 5명, 전남 19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1월31일 911명(광주 500, 전남 411) 이후 111일 만이다. 16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갔다. 광주·전남 일일 확진자는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4월10일 다시 네 자릿수(8429명), 5월1일 1000명대를 차례로 회복한 뒤 휴일 검사인원 감소 효과 등으로 22일 세 자릿수로 안정화됐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방역 체계도 완화됐다. 우선,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검사로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혁신추진위 시민토론회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이용섭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 제공

## 광주혁신추진위, 소상공인·교통약자 자원책 권고

###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 제시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권고안을 확정된 뒤 이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권고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소비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 현실에 맞는 골목상권 지원의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추진위는 우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유통·소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노력 등 3대 분야 1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광주시가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를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성장단계별(장성-성장-폐업-재도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전문분야 컨설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도입 확대와 이동 편의 개선 ▲물리적 장애없는 교통환경 조성 ▲인식 개선과 소통정책 강화 등 3대 분야 13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김용범 기자

## 광주시 '찾아가는 환경뮤지컬' 운영 환경부 공모 2개 사업 선정...어린이·초등생 대상

환경부의 교육문화 분야 공모사업에 광주시가 제안한 2개 환경뮤지컬 사업이 선정됐다. 환경교육문화사업은 환경부가 환경을 주제로 환경뮤지컬, 환경극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을 활용해 학생들의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에 7개 단체가 신청, (주)교육극단 파랑새의 '고미의 지구살리기 대작전'과 (주)플레이팩토리의 '언더 더 씨(Under the sea)'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고미의 지구살리기 대작전'은 찾아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뮤지컬로, 관내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언더 더 씨(Under the sea)'는 환경문제에 대한 문화예술 뮤지컬로 초등학교 16개 학교와 환경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공연은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미와 웃음, 감동, 교훈을 주는 친숙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환경 보전에 대한 공감을 유도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안쓰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3일 "시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문제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5개 보건소 820일 만에 업무 정상화 코로나19 대응 위해 잠정 중단한 업무 재개

광주 일선 보건소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단한 일반 진료·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정상화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3일부터 일선 보건소의 고유 업무인 일반 진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 증명서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흉부 X-ray 검사 등을 정상화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감염병 방역·선별 진료 등에 집중 투입했던 인력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던 2020년 2월 24일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한 지 820일 만이다. 이로써 이날부터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보건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과·치과·한의과 등 각종 일반 진료와 보건증·일반건강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업무가 재개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흉부 X-ray 검사, 임상병리 검사 등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급원·절주, 치매 환자 관리 등 건강진단 사업도 체계를 찾는다. 이에 따라 보건소 일반 업무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자

## 광주 시내버스 1044대 시설 검사 안전장비·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점검

광주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 1044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설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23일부터 6월14일까지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10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와 회차지에서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검사내용은 ▲안내게시물 부착 상태 ▲넙새와 청결 상태 ▲하차문 안전센서, 과속방지 시스템 등 안전장비 상태 ▲교통약자 편의시설 점검 등이다. 또 엔진룸 청소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 유무, 타이어 파손, 외부도색 불량 등 평소 일상점검 관리 부분도 꼼꼼히 점검한다. /권영한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